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

박주화 의원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박주화 의원

|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9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한 독서의 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주변에는 책 한 권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였습니다.

여기서의 종합독서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을 뜻하는데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성인 2명 중 1명은 1년간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연간 종합독서량도 4.5권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연간 종합독서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독서율이 줄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미래세대가 되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습관적 독서인구가 적고 독서율이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면밀히 진단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고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나서 독서진흥 종합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두 분이 협력하신다면 독서문화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독서문화진흥과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에서는 문체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적 독서 활성화,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의 4대 전략과제, 10개 중점과제, 19개 추진과제, 225개 세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사업을 살펴보니 5개 구까지 포함해 약 224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약 125억 원이 편성된 지난해에 비해 사업규모가 많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규모도 약 두 배 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아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실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독서문화진흥 세부과제 중 사회적 독서 활성화 과제인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과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의 과제인 독서정책 기반 조성 그리고 독서가치 및 독자개발 연구 강화는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 몇몇 세부과제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노잼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열렸던 대전 0시 축제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독서의 재미로 확장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독서 축제가 있는 일류 독서문화도시 대전을 꿈꿔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체 학교와 각 기관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해 보니 학교도서관에 독서의 달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있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독서의 달 캠페인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와 인문소양 함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테마독서대회, 함께 가는 교사 지역서점 나들이, 창의독서나눔마당을 비롯한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해마다 청소년 독서량이 줄고 그에 따른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전교육가족이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독서의 달 캠페인 외에도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체험 중심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서점 활용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독서퀴즈대회, 독서감상대회 등 행사도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자칫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독서의 달 캠페인 사업을 포함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독서교육 관련 제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공자원도 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위해 예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아진 책을 처리하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책이 없습니다.
독서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 책이 없습니다.
독자가 점점 사라져만 가는 시대입니다.

비독자가 독자가 되기 위한, 책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위한 일류 독서문화도시 대전만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에 이 시기에 유용한 책 읽기 경험 제공은 당장은 사업 성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업해 가칭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대구광역시와 전남 광양시, 여수시 등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진행되었던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대전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최소화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사업규모를 확대하며 정책을 보완해가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격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격언이고 수없이 들어본 말이라 클리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격언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뉴스만 켜면 보고 듣게 되는 온갖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요즘이기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이 한 문장에서…….
(울먹이며)
저는 다시 희망을 찾아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검토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방안 그리고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특히 청소년들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적 중심, 진학 중심, 취업 중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독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특히 독서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독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때 가장 많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많은 지식 습득이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독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외국 출장 갈 때 들고 갔던 책들 외에 별로 읽어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책을 보는 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책 몇 장 보면 눈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독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독서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4개의 공공도서관 그리고 258개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97개의 인문·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유아, 취약계층, 다문화인을 위한 독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17개 지방정부 중 상위 6개 기관에 선정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6만 권 이상의 도서를 확충하고 3만 2천여 종의 전자책을 제공하여 폭넓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서점이 시민 참여 속에 도서관, 학교, 지역출판사와 함께 독서문화 생태계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견학 프로그램,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등 시민과 성장하는 문화공동체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도시의 서재 역할을 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독서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서관이 많은 나라의 독서율이 높으며 독서율 세계 1위인 핀란드는 국민의 90%가 도서관 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특·광역시 중 인구당 도서관 수 6위로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는 건립 중인 동대전시립도서관 외에도 관저지역에 계획 중인 제3시립도서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기존 258개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 대전시 관내 모든 생활권 내에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동 1도서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및 동대전시립도서관, 관저동에 세우는 제3시립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개념을 완전히 혁신해서 시민들이 늘 자유롭게 와서 많이 즐기고 함께 이용하고 함께 많이 대화하고 또 많은 모임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개의 도서관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도서관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또 한밭도서관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도서관도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학업으로 인해 독서 단절 없이 평생 독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출생한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대전 북스타트,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책 읽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해 개인에게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하여 독서에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상황 및 도서구입비 지원 시 참고서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 25만 명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할 경우 약 50억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25만 명에 1인당 2만 원씩 지원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책을 사서 읽는다는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또 만약 지원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지원한 여러 가지 비용 대비해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지, 이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청소년들이 평생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더 다양하게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독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교육청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 외에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도서관 내 청소년 친화 전용공간 조성 등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책 읽는 도시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청소년 도서구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정서를 가다듬고 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오로지 성적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이런 구조적인 틀을 깨지 않고서는 독서를 권장하는 이런 문화들이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박주화 의원님께서 독서문화진흥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 독서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독서 관련 행사가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독서 관련 행사가 단순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1교 1독서 브랜드 및 독서동아리 운영 등 체험 중심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인문교육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체험 중심 독서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와 협업을 통한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전교육청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을 편성하여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우리 반 온 책 읽기에 12억 1,000만 원, 중·고등학생 대상 길잡이 독서에 3억 2,000만 원, 총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도서 지원뿐만 아니라 책과 친숙해지는 기회와 깊이 있는 책 읽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통한 청소년 도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전교육청은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시 대전시와 협조하여 협업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박주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먼저, 시정질문 중에 분위기를 다운시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보다는 우리, 나의 탓이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하기 위함의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얼마 전 어느 성형외과 의사의 한강 뷰 활용법이라는 칼럼 하나를 만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채그로라는 서점을 운영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담긴 글입니다.
유리창 바깥으로 한강이 보이고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꾸며진 이곳은 책을 사지 않고도 하루 종일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이 누굴까, 왜 이런 수익성 낮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만나본 채그로 주인 이안나 원장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지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연이어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던 중에 책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특정 책 한 권이 아니라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본인 스스로 책 읽기를 통해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책이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오늘도 한강뷰 명소로 알려진 채그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독서가능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탕이 책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책 한 권이 참 귀했습니다.

소설책 한 권을 서로 먼저 읽겠다고 여러 형제들이 다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경험하셨을 시대적인 흔한 풍경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귀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은 소중한 가족 추억과 함께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잡고 삶을 지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독서 관련 토론회,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독서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던 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역서점을 방문해 직접 책을 고르고 문화를 체험한 사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만족했던 지역서점 탐방 사업 지원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공사례를 가정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동네 서점을 방문해 책을 고르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다시 서점을 방문하는 일상이 있는 대전광역시민의 삶을 그려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위기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부모님이나 때론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경험을 떠올리며 위기의 순간 극단적인 선택 대신 책 한 권을 더 찾고 삶의 지혜를 키워가는 어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 문제는 어느 사업이나 있습니다.
몇십억을 투자해 미래시대를 살아갈 대전의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투자의 효용성은 그 어느 사업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두 분의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한 가칭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박주화 의원님께서 특히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다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 또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격려합니다.
선생님들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늘 많은 학부모들이나 제자들로부터 정말 평생을 존경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도서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추가로 강조하셔서 저희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효과가 제대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서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요즘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서점을 포함해서, 인터넷으로 할인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잘 안 나고 또 인터넷 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서점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서점들을 보호하는 것과 또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더 힘을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박주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이렇게 해주시고 제언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러야 될 것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성을 길러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바른 인성은 모든 질서와 법 이런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른도 공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인성이 기본이 되는 건데 사실 인성교육은 자기 관리역량입니다.

자기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는 그리고 또 소통과 협력역량,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는 그것이 인성교육의 바탕입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야만 미래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독서체험에서 일어나는데 독서가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독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미래역량도 강화됩니다.
독서를 하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식은 고정적인 것이고 지혜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곧 창의력과 동일시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동화를 읽는다든지 어른들도 소설을 읽는다든지 이런 속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지요.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책은 지혜의 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서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만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소통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어떤 것을, 기술을 개발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과 협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야 우리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통과 협력을 할 때는 어휘가 필요합니다.
또 문장의 구성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책을 봐야 어휘가 늘어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데 그 벽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어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휘를 기르고 그리고 문장의 구성력을 길러야만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같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독서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서교육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내에서도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독서활동, 우리 아이들이 독서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강화해서 얻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러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아이들이 역량을 기르는데, 독서활동은 특히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비 지원 추진은 바로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이 추진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서점도 방문하면, 서점을 방문하면 그 책만 사는 게 아닙니다.
책방을, 서점을 돌아보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구입하면 책을 읽는 역량, 책에 대한 흥미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서구입 지원비, 도서 지원사업 추진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가정, 부모와 함께하는 그러한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역량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교육청에서는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대전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공통분모,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독서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독서교육을 강조하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책 얼마나 보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빙긋이 웃으시잖아요.
“어머님 앞으로 댁에서도 TV 많이 보시지 말고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1~2주일 책을 읽다가 어느 날 TV를 보면 아이가 “엄마 오늘은 왜 책 안 봐?”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독서를 강화시키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독서교육은 우리 아이들 교육, 가정에서의 독서, 사회에서의 독서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우리 학교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가정과 사회에 독서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